

전남

농특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대폭 확대

고흥 한우·진도 구기자 등 11개 품목 준비 중
전남도 우수 농산물 발굴 상품 브랜드화 박차

전남도가 우수한 지리적 특성을 가진 전남산 농산물과 그 가공품을 보호하고 브랜드까지 제고를 위해 추진 중인 지리적표시 등록품목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10월말 현재 전남의 지리적표시 등록은 지난 2002년 제1호로 등록된 보성녹차를 비롯 해 고흥 유자·진도 홍주 등 농산물 및 가공품 15개 품목, 장흥표고버섯·영암 감 등 임산물 4개 품목 등 총 19개 품목으로 전국(98품목) 최다를 차지하고 있다.

담양딸기와 보성 울버섯은 농산물 품질관리원으로부터 등록이 확정돼 공고를 준비하고 있어 조만간 등록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흥 한우, 진도 구기자, 검정쌀 등 11개 품목에 대해서는 지리적표시 등록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자료수집 등의 절차를 거쳐 등록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밖에 해남 검정보리, 함평 국화, 영광 고추 등 12개 품목을 발굴해 지리적표시 등록을 준비 중이다.
그동안에는 유사상품의 브랜드 침해로부터 피해를 받으면서 권리침해 금지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제도적 장치가 갖춰지지 않았으나 지난해 12월 ‘농산물품질관리법’이 개정되면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돼 시장 차별화를 통한 부가가치 향상 및 품질 향상이 기대되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믿을 수 있는 상품 구입이 가능하게 됐다.
특히 ‘배타적 사용권’ 인정으로 인

지도 제고 및 수익 증대로 판매 촉진이 활성화되고, 등록품목 중심의 농업 생산·가공·유통·체험·관광 등이 결합된 지역농업 특화와 조직화 기반 구축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박근호 전남도 농산물유통과장은 “지리적표시 등록은 지역 특유의 우수한 농특산물에 대해 배타적 권리를 선점하고 상품 브랜드화를 위해 중요하다”며 “지역농업 클러스터사업, 향토산업, 신활력사업, 특화품목 육성사업 등과 연계해 지리적표시 등록 품목을 확대·발굴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필수기자 bungy@



“우이도 쓰레기 수거”

다도해해상 국립공원사무소(소장 황정걸)와 목포 산청초등학교(교장 박광남) 운영위원들은 지난 13일 도초면 우이도 ‘풍성사구’(風成砂丘)를 현지 탐방하고 해안가에서 각종 쓰레기를 수거했다. 바람이 불어낸 우이도 모래언덕은 높이 100m·폭 20m로 동양최대 규모이다.
/서부취재본부=조완남기자 wncho@



금일면 구동마을 ‘노인센터 생겼네’

완도군수 등 주민 300여명 참석 준공식
5억원 들여 찹쌀방·물리치료실도 갖춰

완도군 금일면 구동마을에 노인복지와 주민생활 편의를 위한 경로복지센터가 문을 열었다.
완도군은 지난 12일 김중식 완도군수와 조인호 부의장, 이정일 추진위원장, 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가졌다. <사진> 이날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100만원에 금일면 ‘장보고 장학금’으로 기탁했다.
금일면 구동 경로복지센터는 어촌 종합개발 사업비 5억원을 투자해 지상 2층(369㎡) 규모로 남녀 노인정과 찹쌀방·물리치료실·다목적 강당 등을 갖추고 있다.
특히 다목적 강당은 음악교실과 에어로빅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비롯해 각종 마을예·경사시에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여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완도군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5%에 달하는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어 따라 민선 4기부터 복지센터 건립을 공약사업으로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현재 경로복지센터 26개소가 준공됐으며, 10개소가 추진중에 있다.
김중식 완도군수는 “경로복지센터는 주민들의 건강과 여가생활을 위한 한 특수사업”이라며 “군민 편의와 노인복지를 위해 적극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정은조기자 ejchung@

함평군-日 니혼마츠시 교류 확대

‘국화축제’ 기간 농수산물 판매장 개설

한·일 양국의 ‘국화축제’ 고장으로 명성을 쌓아가는 함평군과 일본 후쿠시마(福島)현 니혼마츠시(二本松)시가 내년부터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15일 함평군에 따르면 안병호 함평군수는 지난 12일 함평 국화대전 행사장을 방문한 니혼마츠시 안자이가 자오 산업부장을 만담해 내년부터 양 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국화축제부터 양국 관광객 교류를 증진하고 농수산물 판매장을 각각 개설하기로 했다.
함평군은 매년 10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국화대전을, 니혼마츠시는 매년 10월 1일부터 11월 23일까지 일

본 최고의 국화축제인 ‘국인형전(菊人形展)’을 각각 열고 있다. 함평군과 니혼마츠시는 지난해부터 행사장에 양 자치단체의 홍보관을 개설했고, 양 자치단체 고위관계자가 행사장을 교차 방문하기 시작해 지난해엔 안병호 군수가 국인형전을 참관했다.
함평군 관계자는 “함평의 국화축제 및 조형작 기술과 일본의 2000송이 천간작(한 뿌리에서 500송이 이상 대기를 재배하는 것)에 대한 상호교류 및 교류를 활발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황은희기자 hwang@

목포상의, 광주지방국세청장 초청 간담회

“지역 中 小 企 애로사항 해소 노력”

목포상공회의소(회장 주영순)는 최근 지역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의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과 상공회의소 임원 등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성근 광주지방국세청장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은 조선기자재기업 세제지원과 기부금 공제 확대 등 세정 애로사항에 대해 건의했다.
주 회장은 “전반적인 경제지표 호전 속에서도 지역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경영환경의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서부취재본부=이성진기자 sslee@

토종별 집단폐사·감 냉해·벼 쪽집이 피해
구례 농민들 ‘3중고’ 호소

을감 매출 ‘반토막’ 예상
구례 농민들이 토종별 집단 폐사와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감 냉해, 벼 쪽집이 피해 등 3중고를 호소하고 있다.
15일 구례군에 따르면 지난달 27~28일 갑작스런 한파로 인해 본격적인 수확을 보며 앞두고 있던 감이 모두 얼어버리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감들이 냉해를 입어 품질이 떨어지면서 평소 10kg 1박스당 3만5000원을 채유했던 감 가격이 1만~2만원대까지 폭락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다.
이런 냉해는 890여 농가 320ha 전

체 재배지에서 발생한 것으로 군은 연간 90억원에 달하던 감 매출이 올해는 반 토막이 날 것으로 보고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최근 냉해 감농가 돕기에 나서 공무원들이 900여 박스를 사주고, 재해보상 대책을 마련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하지만 보상액이 6000㎡ 이상일 경우 ha당 47만원에 불과하고, 6000㎡ 미만은 피해율이 50%가 넘으면 단돈 77만3000원을 지급, 현실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8월 구례 토종별 농가들은 토종별들이 바이러스성 질환

인 ‘남충붕아부패병’에 감염돼 궤멸 농사를 완전히 망친 상태이다. 현재 구례 전체 800여 농가에서 치고 있는 2만7000여근(1군은 2만5000~3만마리) 중 생존한 토종별은 단 19개 군에 불과하다.
다육이 ‘남충붕아부패병’은 재해보상 대상에도 해당이 안 돼 농가들은 사실상 농사를 포기한 상황이다.
구례군 관계자는 “토종별에 이어 감과 벼농사까지 이 같은 ‘최악의 실농’은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군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 등 당국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이진택기자 ik5826@

‘토마토 시들음병’ 등 친환경적 방제
도 농기원 특허기술 이전 협약 체결

전남도 농업기술원은 최근 ‘토마토 시들음병’과 ‘잿빛곰팡이병’ 등을 친환경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특허 기술을 산업체에 이전했다.
전남도 농업기술원 친환경연구과는 최근 (주)팜스코리아와 ‘슈도모나스 에스키 균주를 이용한 식물병 방제제 및 방제방법’에 대한 기술이전 협약을 체결했다.<사진>
농업기술원은 이번 특허기술 이전협약 체결로 (주)팜스코리아로부터 향후 3년간 제품생산과 판매권을 부여하는 대신 선급기술료 530여만원과 매년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기술 사용료를 받게 된다.
이번에 이전한 기술은 토양에서 찾아낸 균주의 배



양액을 이용해 ‘토마토 시들음병’을 70% 이상 방제하고, 74% 정도 방제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친환경 방제방법이다.
친환경연구소 감병을 박사는 “앞으로 개발한 균주의 효능을 더욱 높이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생물약 기술개발과 산업화를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송기희기자 song@

GG경매 컨설팅(주)
대표이사 노찬규 ☎222-1907
공인중개사 010-9311-1907
[공인중개사 : 강영희 ☎(062)364-8700 H.P 010-4608-3700]
▶아파트
지역 소재지 아파트면적/평 감평가 최가
▶주택
지역 소재지 대지/건물(㎡) 감평가 최가
▶원룸/빌라/다세대/오피스텔
지역 소재지 면적/평 감평가 최가
▶숙박시설
지역 소재지 대지/건물(㎡) 감평가 최가
▶공장/창고
지역 소재지 대지/건물(㎡) 감평가 최가

현대공인중개사
토지 급 매매
▶서구 마곡동, 생산녹지, 3002㎡(908평), 매매가 15억원대 총 7억7천여 원의 임대차권변전 인건, 교회 식당 창고 공장 용도다양
광산구 토지 매매
▶광산구 양동, 계획 관리지역, 28.845㎡(8.725평), 토지 전체면적중 15.818㎡(4.784평)전용 되어있음, 건축물 637.46㎡(192.83평), 현재 쉼 매장, 적합한 용도 : 기도원 수련원 공장 창고 사회복지시설(요양원, 요양병원), 전원주택 부지로 개발 가능, 매매가 협의 후 결정
▶송학동, 계획관리지역, 2차선도로에 접, 21914㎡(6.629평) 매매가 22억
수익성 좋은 상가건물 매매
광산구 우산동, 대지 321㎡(97평) 건물 지하1층 지상6층 1326㎡(401평) 임대 내용 : 보증금 2억1천5백만원 월 74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아파트 2.300세대대근, 대출 3억원, 매매가 12억원
▶본 광고물건은 전속 계약된 물건임
T. 062)371-1900, 010-2006-0115
상무 우리빌딩에서 50m지점 www.85858949.co.kr

상무랜드공인중개사
건물(임대용, 투자용)
▶토지 500평 건물 4,400평 (매가 2000억) 보증금 100억 / 월세 5,000만원
▶토지 594평 건물 725평 (매가 950억) 보증금 38억 / 월세 2,600만원 (중개 수수료 12억)
▶토지 164평 건물 588평 (매가 332억) 보증금 5억 / 월세 2,000만원 이상
토지(상무지구 상업지역) (회사용, 병원, 학원, 기타부지등)
▶834㎡(250평) - 매가 평당 1,300만원(포괄부속권과 매가 800만원(가치평가))
▶3,224㎡(975평) - 평당 950만원
▶1,651㎡(500평) - 평당 900만원
건물(임대용, 투자용)
▶(농지) 73,000㎡(2만2천평) 전 담 평당 10만원(농지농산물투자용) 좋은 곳
▶(공정가능) 송촌동 지선녹지 7,724㎡(2,200평) 전(매가 7500만원)
▶상가(상무역) 전(매가 7500만원)
▶(농지) 2,000㎡(600평)의 류동 직접 평당 2,300만원(15,000㎡)
▶(농지) 50,000㎡(15,000평) 평당 60만원
▶주위(안정) 토지 843㎡(255평) 주택 38평 (매가 8500만원)
▶(기타) 송촌동 동림동 주차장(1,352평) (매가) 평당 300만원(예산, 병 원직업)
맞춤주문 받습니다.
원하시는 물건 찾아 드립니다.
정리하십시오.
필요하시면 전화 주십시오.
☎(FAX)383-5221 ☎11-609-5221
(상무지구 이비동 갑자탕 1층)

금산공인중개사
상무신도심 상·업·용·지 (C1지역) 매매
▶위치
- 상무병원, 롯데마트 건너편, 삼성화재빌딩 (4면 광로변)
▶대지면적
- 약 2,850㎡ (180평 분할가능)
▶3.3㎡당 매매가 - 1,300만원
▶공동 복합 APT 주택가능 (최근 도시계획 변경)
▶중합병원/상/오피스 유휴가능
장점
① 주상복합(공동 APT) 가능
② 광로변 최고 광고 효과
③ 롯데마트, 상무병원 건너 삼성화재 옆 최고의 상권
④ 최고의 교통 접근성
⑤ (중합) 상권 접근성
⑥ 상무신도심 중심상업, 병의원,
▶ 10층 신축건물 옆 코너
T. 681-5666 H.011-601-5354
(서광주역 건너 순환도로변)

대인동상일부동산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뿐
상가 전문소개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점
포기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
른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있
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
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인 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시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
개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
을 다하겠습니다.
☎(FAX)223-1772 ☎11-602-2532
(광주은행 신봉점 옆 대인동 상가건물내편)